“이제 되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목화균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난 지금 도망가고 있다. 현실이 싫을 때마다 핑곗거리를 찾아 해외로 간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또 무기력이라는 친구가 찾아온 것 같다. 내가 늘 데리고 다니는 친구이지만 가끔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때가 있다. 2014년 8월 몬트리올 BIEN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였던 것 같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발표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 나에게 기본소득 3인방은 소리 없이 문득 찾아왔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화균아! 몬트리올 국제 학회에 기본소득 멤버들이 가는데, 너도 가서 도와줄래?” 한국에서 종우 선배에게 몇 년 만에 카톡을 보내왔다.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지만, 대전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창립한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있었다. 나같이 미천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네” 하고 말해버렸다. 3년 차 유학 생활이 무료했고 무조건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던 터였다.

활동가 3인방을 몬트리올 공항에서 처음 만났다. 인사하고, 그날부터 바로 철기라는 몬트리올 유학생 후배 집에서 화려한 일주일간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박선미 안효상 금민 3인을 만난 후에야, 다음회 BIEN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이들이 가져온 팸플릿을 활용해 BIEN멤버들에게 총회 때 다음 개최국을 한국에 투표해달라고 홍보하는 일이었다. 첫날 학회가 끝난 후 와인 파티에서 각국의 기본소득 활동가를 만나 팸플릿을 전달하고 학회 중간 쉬는 시간에도 만났다.

학회 종료 후, BIEN 총회가 시작되었고 거의 마지막 순서에 다음 개최국 후보

인 한국, 핀란드, 네덜란드가 차례로 다음 개최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 후 회의실 강단에 십여 명이 줄을 서 차례로 질문을 쏟아냈다. 학회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장소는 어디일지 등. 영어책을 몇 권이나 번역한 훌륭한 3인방이지만, 제2외국어이고 정식 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이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나에게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함 그 자체였다. 이들의 긴장감은 홀에 앉아 있는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발표자 효상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결국 두 나라가 한국에 양보하고 2016년 한국 개최를 확정지었다. 두 나라가 모두 한국의 준비를 보고 감명을 받아 한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세 나라 중 오로지 '한국만이 팸플릿과 한글 파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며, 언어적 장벽 속에서 선택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지 발언이 있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대세는 이미 한국인 듯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삼인방의 만남과 함께 처음 알게 되었다. 기본소득의 내용보다는 이들의 활동을 더 많이 지지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지였다. 좋아하는 활동가들이 지지해서 지지했다.

그때 알았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섹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마, 무시한 이들의 지적능력은 보이지 않고, 제2외국어 영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국제 활동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들의 용감함이 너무 짜릿하게 다가왔다. 나의 무기력은 부끄러워 내 맘 깊이깊이 숨어 버린 것도 몰랐다. 일생을 영어 선생으로 산 나로서는, 나보다 똑똑한 젊은 학생들이 빛나는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광경을 보는 것처럼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학위를 받고 미국에 남지 않고, 그들이 연결되었을지 모르는 NGO단체에 취업했고, 라오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 단체와, 삼인방에게 새 희망을 얻었으리라. 잠시 무기력이라는 친구를 멀리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껏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2016년에 한국에서 BIEN이 개최되었고, 난 라오스에서 마지막 연차를 모두 써 한국 학회에 참석하였다.

86년도 창립 이래 40여 개국의 참가국이 참여한 Seoul BIEN 학회는 성공적이었다. 처음이라 완벽하게 하고 싶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준비한 학회는 개최 주체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지 모르나, 내 눈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즐거운 소풍 같은 학회였다. 청년들이 기본소득 쿠폰을 발표자 전원에게 나눠주어 차를 한잔씩 마실 수 있는 카페를 학회장에 만들었었다. 또한, 학회 전날에는 록 콘서트라는 청년 활동가들의 문화예술 전야

제도 있었고, 학회 둘째날 밤에는 해외 활동가들의 DJ로 국제 댄스파티가 열려 흥을 돋구기도 했다.

또한 라오스에 서둘러 귀국하는 바람에 갈 수는 없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DMZ도 외국 활동가들이 갈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었다. 이 모두는 핀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인도 학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에서의 왕성한 활동력이 돋보이는 학회였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시간을 보낸 순간이었다. 한국에 기본소득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했다.

그 후 7년, 2023년 8월 포르투갈, 핀란드, 인도, 아이슬란드, 호주를 지나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2번째로 열렸다. 22년에는 연 120만원 기본소득 실행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도 나오고, 0.7퍼센트로 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이 기본소득 첫 현실로 이루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

"대만도 한국처럼 기본소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회 발표자인, 대만 청년 활동가, Tyler가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국도 아직 현실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대답을 듣고, 갑자기 귀가 번뜩 띄었다. 뭔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그는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이뤄놓은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제는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자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1986년 시작된 BIEN은 European Network이었으나, 2006년 Earth Network로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2010년 한국 가입을 시작으로, 2016년 아시아 한국에서 3인방과 함께 처음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전에서 종우 선배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10년 후에 기본소득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꺼라 생각하지 못했다. 나 또한 그랬다. 이제 되었다. 이제 기본소득은 내가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국민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기본소득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활동 할 때가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로 깊숙이 공유되어야 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청년들의 저항이 없던 이유는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건 내 껀데' 저자 이선배는 이야기한다. 정부 단체장의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의한 정책이라야 뿌리내릴 수 있다고. 이제 나

를 믿고 지지해 주는 이들과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세상에 대해 사심 없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번 학회에서 한바탕 놀다 왔다. 예술가에게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도 하고, 청년 예술가들과 미숙하지만 버스킹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나의 주변의 예술가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은 어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영상으로 담아서 발표했다. 예술가들은 과거의 나처럼 기본소득을 잘 모르지만 지지하고, 나의 활동을 응원해 주었다. 학술 학회이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나를 포함한 대중이 즐거우면 되는 것이다. 단체를 조직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한다는 조바심은 무기력과 친구하라고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것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다른 세상을 향한 것일지라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이 또한 현실일 수도 있으니.

-23년 10월 일본 오카야마 성에서-